

‘노무현, 인물은 좋은데 당이 마음에 안든다’ 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만 지나면 지역당시대가 끝이 납니다.
 대구후보도, 부산후보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근태·노무현·이인제 세 사람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내 뿌리는 노무현이 제일 깊습니다.
 이번에 당선만 되면, 자신 있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가 되어도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미워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영남, 호남의 반쪽 지도자가 아니라
 전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 화합의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돈없고 힘없어서 큰 소리 한번 못하고 사는 서민들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정이나 권모술수에 의지하지 않고, 원칙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꼭 인물보고 2번 노무현

- 1946년 경남 김해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김해 대창초등 졸업, 진영중 졸업, 부산상고 졸업
- 1971년 육군 상병 만기 제대(을지부대)
- 1975년 사법고시 합격, 그 뒤 판사·변호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감옥에도 끌려가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당함
- 1988년 5공 실세 허삼수를 누르고 13대 국회의원 당선, '청문회스타'
- 1993년 당내 민주적 경선을 통해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으로 선출됨
- 1998년 대한민국 정치1번지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 2000년 새로운 지도력 창출을 위해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깨끗한 선거를 위해
 자원봉사를 부탁드립니다

☎ 971-0001, 361-3055

소중한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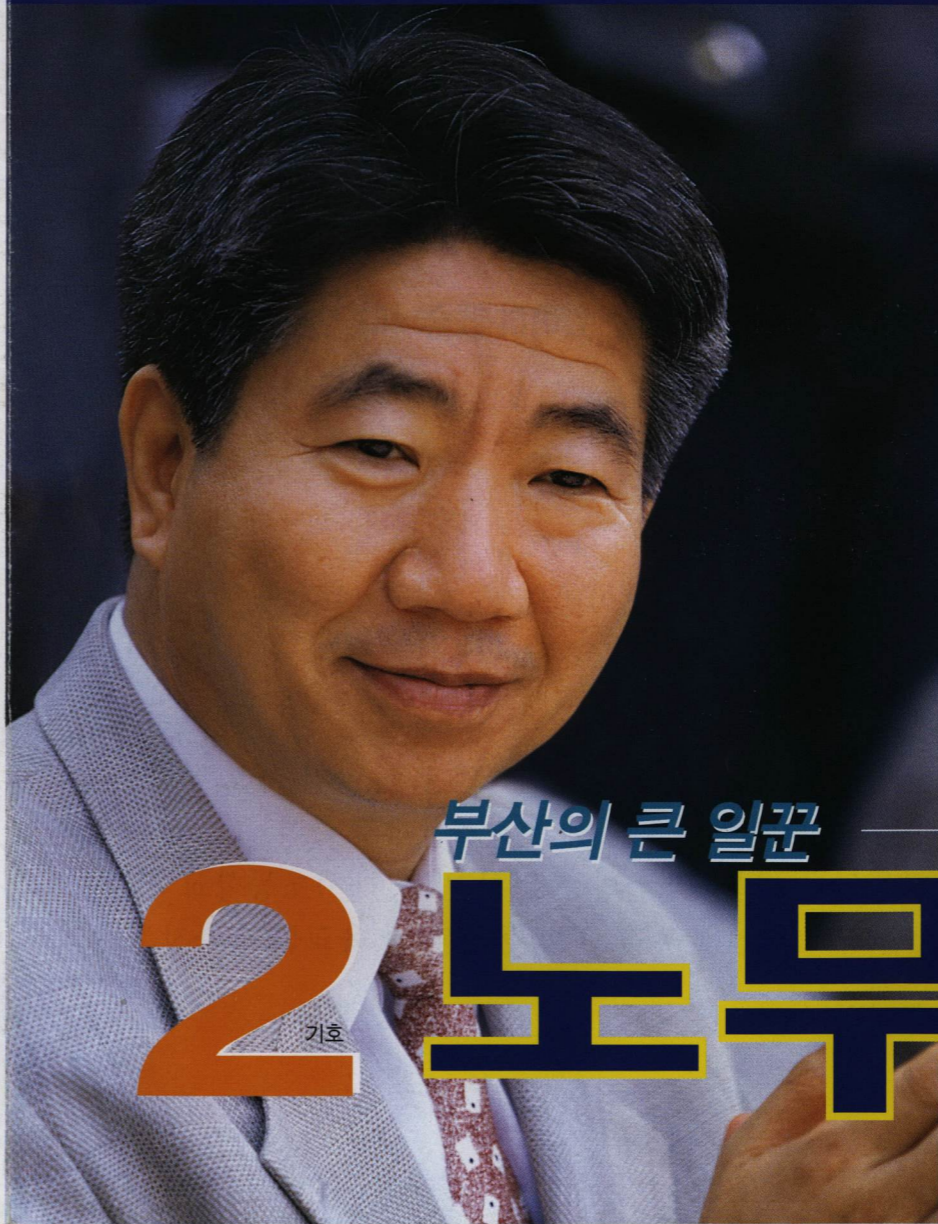
ARS후원금 ☎ 02-7000-337 (1통화 1만원)
 홈페이지 www.knowhow.or.kr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77-12 ☎ 971-0001 ☎ 복구 : 361-3055 팩스 : 971-0117

“노무현은
 당선이 보장된 ‘종로’ 를 버리고
 이 어려운 ‘부산’ 에 왔습니다.

왜?”



부산의 큰 일꾼

2번 노무현

이 인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직된 것임 ▶ 제직자: 후보자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 인쇄처: 인쇄골 (부산 중구 동광동 47-15-1, 전화/ 051-465-1225)

부산에서 내리 두 번 떨어진 사람이 종로에서 당선되었습니다.
6년만에, 그것도 정치1번지 종로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종로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로사람들이 아니라 부산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예산, 삼성차, 녹산공단, 신항만, 낙동강, 그린벨트....,
문제만 생기면 종로국회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산국회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에 국회의원은 많았지만 여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당이 짝쓸이하면 부산 일은 누가 할 것인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로를 버리기는 아까웠습니다.
평소 아껴주던 분들도, 도와주던 분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두 번이나 떨어졌으면 됐지’ 뭐하러 또 가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야망도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더 큰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야망도 품고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발산업육성 4,000억원 확보, 삼성차 재가동, 녹산공단 10% 할인분양,
그린벨트 지침 변경, 지사과학단지 확정, 낙동강 수질개선계획 확정,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강동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위치 변경, 대사초등학교 신축,
명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버스노선(157-1) 연장, 동원역 앞 육교설치 확정,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면제...

앞으로도 남은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턱달동안 접수한 민원이 250여건이 될만큼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삼성차, 더이상 부품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매각문제, 끝장을 볼 때까지 매달릴 작정입니다.

강서 그린벨트, 한심한 ‘쓰레기벨트’ 였습니다.

내 땅에 방 한칸 들여도 ‘전과자’ 를 만드는 ‘족쇄’ 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건교부와 싸워 지침 몇 개 고쳤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곡창으로 이름났던 김해평야,

낙동강물은 더럽고, 농로와 수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버려진 땅과 같습니다.

명색은 광역시라고 정부의 지원도 형편없고 농민들은 울분에 차 있었습니다.

서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농업환경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녹산공단, 신항만공사로 어장을 다 빼앗기고 일터를 잃어버린 어민들,

울분과 답답함을 소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삼성차 공장, 녹산공단이 제대로 가동되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한정어업면허라도 내주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어야합니다.

가덕도, 이름만 부산이지 낙도와 같은 섬,

날만 굶으면 뱃길이 끊겨 학교도 못 다니는 곳,

하루빨리 다리도 놓고 일주도로도 완공해야합니다.

금곡·화명 지역 서민들,

몇 만원하는 관리비도 몇 달씩 밀린 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일자리가 급했습니다.

속히 서민보호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